

정후식 칼럼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광주와 대구는 동서로 200km나 떨어져 있지만 닮은 점이 많은 도시다. 지리적으로는 각각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내륙 거점이다. 대도시로는 드물게 도심 가까이에 높이 1000m가 넘는 산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무등산(1187m)과 팔공산(1192m), 그 웅혼한 정기 덕분일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면 양쪽 사람들은 떠나없이 앞장서 항거했다. 두 도시 모두 의항(義鄕)의 전통이 있는 것이다. 국제보상운동과 학생독립운동은 각각 대구와 광주로부터 시작했다. 민주화의 초석이 된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내륙 도시의 한계로 인해 물류 기반과 산업 구조가 취약한 점도 닮은꼴이다. 대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압축성장 과정에서 경북축의 핵심이었지만 섬유 등 중심 산업이 쇠퇴하면서 침체를 겪었다. 광주는 정부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 성장 전략에 밀려 애초부터 산업 발전에서 소외됐다. 그 후유증인지 양 도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나란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선 '초광역 협력'

정치적으로 보면 역대 정권과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면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진보·보수의 심장으로 각각 꼽히는 양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철이면 각자의 진영에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정치적 편향성이 그만큼 심화됐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영호남 같은 구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30여 년 전, 먼저 민간이 나서 상생의 오교과를 놓았다. 1991년 양 지역 교수·기업인·법조인·의사·예술계·언론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영호남 민간연합회'가 그것이다. 협의회는 동서

경제공동체 꿈꾸는 '달빛동맹'

간극을 메우기 위해 청소년·문화·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영호남 연결 교통망에 대한 집중 투자와 통합 행정구역 구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간 교류는 지자체들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1998년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출범했다. 이어 이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자본금을 출연해 '동서교류협력재단'을 만들었다. 재단은 그동안 상대 지역 바로 알기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동맹'이다. 2009년 체결한 의료산업 공동발전 협약이 그 단초가 되었다.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해졌다. 이에 두 도시가 소모적 경쟁을 자제하고 어느 곳이 선정돼도 연구시설과 생산 장비를 공동 활용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달빛동맹'이란 말도 이때 처음 쓰였다.

이후 상호 방문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2013년에는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두 도시의 시장은 5·18민주화운동과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했고, 시민의 날에도 서로 사절단을 보내며 심리거 거리를 좁혔다. 2년 뒤에는 '달빛동맹 민간협의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매년 양 지역을 오가며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광주대구고속도로의 확장 개통은 인적·물적 교류 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사망사고율이 높아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던 88울림고속도로(왕복 2차로)가 4차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를 거쳐 2015년 완공된 것이다. 영호남이 힘을 합쳐 조기 개통을 이뤄 낸 덕분에 교통량이 30% 이상 늘어나고 운행 시간은 단축돼 물류비용이 크게 줄었다.

두 도시는 특히 상대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먼저 손을 내밀며 끈끈한 형제애를 과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례 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광주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보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그해 대구에 518번 시내버스가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광주에 228번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

해 양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을 서로 기리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달빛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부족한 병상을 나눈 '병상연대'는 감염병 극복의 수범 사례로 꼽힌다.

고무적인 것은 양 지역 시장이 몇 번씩 바뀌어도 정책 공조가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 분야 역시 경제·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환경생태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양 지역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달빛펀드' 운영은 물론 인공지능(AI), 친환경 자동차, 첨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내륙철도·아시안게임 전폭 지원을

지난 6월에는 두 도시를 한 시간대로 이어 물리적 거리를 한층 좁혀 줄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년간 번번이 탈락했던 광주 송정-서대구 간 198.8km의 철길 개설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역시 촘촘한 공조 덕분이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4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육상·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의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두 도시는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달빛동맹은 정치권이 만든 지역감정을 영호남이 대립하는 사이에 수도권만 비대해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양 도시가 지역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중앙집권에 맞서는 지방분권 운동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두 도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부 내륙 광역경제권 구축을 꿈꾸고 있다. 국토의 남북축에 편중된 교통인프라와 산업기반을 동서로 확대해 국가 신성장축이자 경제공동체로 승화시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광역지자체들의 '초광역 협력'을 제시했다. 달빛동맹은 이를 선구적으로 실천해 온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전폭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나는 내 생애의 황금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약령 늪은 미국 경단의 두목 알 카포네의 말이다. 테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소개된 내용이다. 세간의 비난에 대해 그는 이런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잘 한 일도 많은데 왜 비난 갖고 그래."

실제로 알 카포네는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이었 다. 대공황 시절 그는 시카고에 실직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를 차렸다. 하루에 2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파티도 열어주고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등 자선사업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알 카포네를 '현대판 로빈 후드'로 여

웬만한 사회 공헌 활동은 마피아도 한다

기기까지 했다.

당시 알 카포네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고 대단해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고 시카고 젊은이들이 아닌 슈타인, 헨리 포드와 함께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요새말로 표현하면 살인과 약탈을 제외 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간 우애가 지극했고 조직원의 보스로서 조직 관리도 탁월했다. 알 카포네는 "나는 시민이 바라는 것을 공급했을 뿐이다. 내가 범죄자라면 선풍한 시카고 시민들 역시 유대자"라며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사업가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미국 마피아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아메리칸 갱스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미국 범죄 스릴러물로 1960~70년대 뉴욕 경찰의 부패상과 마약 거래의 실상을 보여준 영화이다. 영화 도입부에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 활동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도 갱단 두목의 닉네임은 '할렘가의 로빈 후드'였다. 잔인한 갱단 두목이었지만 할렘가의 빈민들에게는 자선 사업가였던 것이었다.

우리나라 속담 중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다. 이젠 이 말을 바꿔야 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된 후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마피아식 방법과 무엇이 다를까? 이젠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활동이 중시되는 마켓 3.0의 시대다. 지식 기능 경영과 공유 가치 창출이 중심이 되는 기업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경영 화두는 단연 ESG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지배 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ESG는 2005년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 가이드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 여러 요소가 서로의 논리를 강화시켜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가성비 높은 PR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부 기업은 ESG를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시용만 내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ESG를 MSG처럼 쓰면 바로 발각된다. 정보 기술로 무장한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MZ 세대일수록 가치 소비를 중시한다. 진정성과 지속성, 기업 본질과의 연계성을 기본으로 한 ESG 경영으로 한 차원 높은 기업 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쌀 매입, 경제적 논리에만 휘둘러선 안 된다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난해 법제화된 '시장 격리제'의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지만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쌀값 하락은 방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격리 조치는 차일피일 미루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당국은 더 이상 쌀 매입을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치솟으면서 농업인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내년도 영농 여건조차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 앞선 대 묘친 격으로 자식처럼 키운 쌀값마저 하락한다면 그들의 영농 의지마저 꺾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범정부적인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쌀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급락을 방지하면 불안감이 조성되어 유통이 경색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쌀 직불금 재정을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는 등 사회적 비용마저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생산량의 일부를 매

입 시장 격리하는 조치는 타당성이 있다. 식량 안보와 가격 적정성 담보를 위한 공공 비축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하는 정책이다.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전 결정된 물량 이상도 매입하고 시장 가격 보다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물론 수확기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국내 쌀 산업이 공급 과잉에 처한 상황에서 매년의 목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는 관세와 유예 조치는 큰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산 쌀이 포화인 상태에서 더 이상 쌀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세와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남아도는 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 쌀 가공산업 육성, 수입쌀 사료용 활용과 함께 수출 활성화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기반마저 무너진다면 국내 농업계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단기 처방에 머물지 말고 식량 안보까지 감안해 쌀 농가를 보호할 중장기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농업계의 일원으로 간절히 기대한다.

社說

여수산단 잇단 폭발사고 주민들은 불안하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났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세 명이 숨졌다. 안전 조치 강화에도 끊임없이 빈발하는 사고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제 여수시 주삼동 여수 산단 내 이일 산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휘발유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저장해 놓은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꽃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탱크 주변에서 일하던 일곱 명의 작업자 중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세 사람의 시신은 사고 현장과 5~10m 떨어진 다른 공장에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폭발 당시 충격 때문에 사망자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공장 관계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에서는

작업자들이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폭발사고가 있었다.

여수산단에서는 잇을 만하면 폭발과 화재,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16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해 여덟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부상을 당 등 매년 명백히 피해를 냈다. 특히 가연성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업체가 절반을 차지, 여수산단은 사고가 나면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화약고'로 꼽힌다.

수년 전부터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40이 넘어서 노후화된 공장설비와 부실한 안전 대책,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제는 여수산단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역패스 '먹통' 밥 한 끼 먹기 이리 힘들다니

'방역패스' 시행 첫날 벌어진 대혼란이 어제까지 이틀째 이어졌다.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QR코드가 먹통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SNS에는 하루 종일 '먹통 인증' 게시글이 잇따랐고, QR코드를 만들려는 손님들로 입구가 가득찬 식당·카페 등은 큰 혼선을 빚었다.

"혼자 서빙하고 음식 만들고 백신접종 확인까지 하려니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데, 하필 첫날 QR까지 먹통이라 답답해 죽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밥 한 끼 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점심시간 식당에 들른 시민들도 역정을 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접속량 폭증에 따른 과부하로 실시간 대량 인증 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기존 방역패스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를 증설했지만 제도 기간 종료와 함께 접속량이 폭증하면서 발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접속 장애가 재발할 경

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주 1주일간의 제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 7월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의 불통 사태를 겪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불신 많은 정부 방역 대책에 불신만 더욱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게다가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도 여전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요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시행 첫날부터 이런 혼선이 빚어진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정부의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준비를 촉구한다.

無等鼓

올해 지구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꼽을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 공급난이 겹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다 보니 중고제품 가격이 신차보다 비싼 '웃지 못할 현실'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를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기를 앞당긴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내년 볼륨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인플레이와 쌀값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분야는 '밥상 물가'다. 앵겔지수(가계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의 비중)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면 바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가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7% 올랐지만, 밥상 물가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7.6%나 올랐다. 심지어 배추는 43.5%,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는 30.0%나 올랐고 계란도 11.8% 상승했다. 올해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 난다. 한데 쌀값은 애그플레이션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7만 원이었던 수매가(조곡 40kg)는 올해 6만2000원선으로 11%나 떨어졌다. 지속적인 소비량 감소에 올해 쌀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1984년 1인당 연간 130kg이던 쌀 소비량은 지난해 57kg으로 급감했다. 밥 한 공기에도 드는 쌀이 100g인데 1인당 하루 158g을 소비한다. 밥 한 공기 값이 263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된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급기야 성년 농민들이 그제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지난해 폐지된 '쌀 목표가격제' 대안으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식량주권인 쌀은 매년 자유무역협정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에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두어서 안 된다. 농촌 고령화를 감안한 청년 대농 육성과 작목 전환 유도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like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and subscription rates.